



이백의 유배시 연구

우 상 렬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말
2. 이백의 유배시 개술
3. '장류야랑(長流夜郎)' 유배시에 대한 비교문학적 고찰
4. 나가는 말

이백의 유배시 연구

우 상 렬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말

이백(李白, 701~762년)은 분명 도사(道士) 사마승정(司馬承禎)이 처음 보는 순간 ‘옥풍선골을 지녔는데 가히 신선과 더불어 하늘에서 노닌다[有仙風道骨 可與神游八極之表]’ 라고 했듯이 ‘선풍도골(仙風道骨)’을 지녔다.

태자빈객(太子賓客) 하지장(賀知章)도 처음 보는 순간 ‘적선인(謫仙人)’ 이라고 부렸다. 그는 스스로도 하늘에 있는 태백성이라 했다. 그는 바로 이태백이 아니더냐! 그는 하늘선계에서 인간속세로 유배를 왔던가. 그래서 그는 신선경지나 노닐며 세속의 벼슬살이와는 인연이 먼 듯했다.

그는 실로 ‘시선(詩仙)’이었던 것이다.¹ 그러나 이백은 구경 세속의 인간이었다. 그는 세상에 크게 쓰이고 싶었고 큰 일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당시 문인들이 나아가는 벼슬길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는 워낙 괴짜였다.

그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정규적인 과거시험을 우습게 보았다. 그는 천거의 방식을 통해 ‘3년 동안 날지 않아다 한 번 날면 하늘로 날아오르고[三年不飛 一飛冲天]’, ‘3년 동안 잠잠하다가 한 번 소리 지르면 못 사람들을 놀래우는[三年不鳴 一鳴驚人]’ 식으로 하루아침에 출세하는 ‘종남첩경(終南捷徑)²’의 길을 택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이미지 관리를 했다. 그는 당시 도교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명산대찰을 선유하거나 ‘은인고사(隱人高士)’의 형상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초부(孔巢父), 한준(韓準) 등과 ‘죽계육일(竹溪六逸)’이라 칭하며 한동안 은거생활을 하기도 했다.

또한 명인관인(名人官人)들과 사귀며 자기의 시재를 드러내고 고견을 피력하며 언젠가 남은 명현들을 ‘받아들이는[收羅遺賢]’ 기회에 천거되기를 바랐다. 그는 ‘선비된 자는 언젠가는 알아주는 자를 만나게 되는 것[爲士者終有遇合之時]’을 믿었다.

그는 결국 도사 원단구(元丹丘)³, 오균(吳筠)과 하지장(賀知章) 그리고 여도사 당현종의 여동생 옥진공주(玉珍公主) 등 도교계 인사들의 천거를 통해 당 현종의 부름을 받는다. 당 현종이 ‘보련에서 내려 신선을

1. 이백은 중국문학사에서 시선(詩仙)으로 불리며 시성(詩聖) 두보(杜甫)와 더불어 쌍자성(雙子星)으로 꼽힌다.
2. 시문을 돌려 명인이나 관인의 긍정을 받아 천거를 통해 벼슬길에 나가는 방식. 이것을 일반적으로 ‘보권(寶卷)’이라 하기도 했다.
3. 원단구는 이백과 지기로서 「將進酒(장진주)」에 등장하기도 한다.

본 듯 맞이했다. 그리고 칠보 걸상에 앉히고 음식을 하사했으며 친히 국을 조리하여 주기도 하는[降攀步迎 如見綺皓 以七宝床賜食 御手調羹 以飯之] 극진한 예우를 받으며 궁정에 든다.

이에 이백은 그럼 그렇겠지, ‘양천대소하며 문을 박차고 나가나니, 내가 어찌 초야에 촌놈이 되리오. 남릉에서 아이들과 갈라져 경성으로 들어가며 입신양명[仰天大笑出門去 我輩豈是蓬蒿人 南陵別兒童入京 立身揚名]의 출세가도를 달리는 듯하다. 이로부터 탄탄대로의 벼슬길이 그와 인연이 닿는 듯하다. 그런데 그의 벼슬길은 애초에 순탄치 않았다.

그래서 이른바 유배와도 인연을 맺게 된다. 봉건사회에 있어서 유배와 벼슬살이는 쌍둥이 형제와 같은 것일진대 어쩌면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볼 수 있다. 사실 출세가도의 벼슬살이보다는 일락천장의 유배살이가 문학창작에 훨씬 보탬이 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한유(韓愈)가 「형담창화시서(荆潭唱和詩序)」에서 ‘대저 평화로운 소리는 담박하나 수심에 잠긴 소리는 긴요하고 묘함이 있으며 즐거운 가사는 정교하게 하기 힘들으나 곤궁한 소리는 쉽게 뽑을 수 있다 [夫和平之音淡薄而愁思之声要妙 欢愉之詞難工而窮苦之音易好]’라고 한 것이나 육유(陸游)가 ‘하늘이 문인들이 그 재간을 다 펴지 못할가 우려되어 그들을 밑바닥 인생에 나딩굴게 한다[天恐文人未盡才 常教零落在篙萊]’고 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백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이로부터 이백의 유배시 연구는 하나의 좋은 연구테마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백의 유배시에 대해 개별적인 거론은 했으되 체계적인 전문논의는 별로 하지 않고 있다. 본고는 학계의 이런 아쉬움을 미봉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본고의

이백 시는 『李白集校注(이백집교주)』(구태원·주금성, 상해, 상해고적출판사, 1980)에서 인용하도록 한다.

2. 이백의 유배시 개술

주지하다시피 유배시라는 것은 일종 유배를 계기로 하여 창작되는 시로 볼 수 있다. 이백의 유배시를 고찰함에 있어서도 그의 삶에 있어서 유배적 계기를 잘 포착해야 될 줄로 안다.

1) 돈을 주어 돌려보내다[賜金放還]

이백은 중국 전통사대부들의 인생패턴인 ‘통할 때는 천하에 뜻을 두고 궁하게 되면 내 한 몸을 돌본다[達則兼濟天下 窮則獨善其身]’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는 일단 통할 때는 천하에 뜻을 두는 인생을 추구했다.

「위비서 자춘에게 줌[贈韋秘書子春]」에서 ‘천하에 뜻을 두지 않을 때 내 한 몸을 돌보아 무엇하리[苟無濟代心 獨善亦何益]’라 한다. 그에게는 유교적인 ‘창생을 구원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며, 사직을 지키고, 재간을 떨쳐 임금을 보필하려[濟蒼生 安黎元 安社稷 奮其智能 愿爲輔弼]’는 정치적 포부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당세의 임금 주(周) 문왕(文王)이 강상(姜尙)을 중용하듯이 자기를 중용해 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는 30대 초반에 장안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알아주는 이가 없다. 그러다가 천보(天寶) 원년(742년), 42세 때 황제의 부름을 받고 장안(長安)에 올라간다.

‘금란전에 있으면서 한림으로 나들었으며 국정을 묻고 조서를 작성한다[置于金鸞殿 出入翰林中 問以國政 潛草詔誥]’는 이양빙(李陽冰)의 『초당집서(草堂集序)』의 기록처럼 중용을 받는 듯했다.

「어가를 모시고 온천에 간 후 양산인에게 드림[駕去溫泉後贈楊山人]」에서는 그는 스스로 ‘하루아침에 임금에 따사로운 손길을 주고 진정을 드러내주었다. 불현듯 따사로운 은혜를 입어 청운의 뜻을 이루었으랴. 행운스럽게도 임금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는데 나는 청룡천마를 타고 모셨으랴. 왕공대인들은 안면을 이용하는데 금은보화가 들락날락하더랴[一朝君王垂拂拭 剖心輸丹雪胸臆 忽蒙白日回景光 直上青雲生羽翼 幸陪鸞輦出鴻都 身騎青龍天馬駒 王公大人借顏色 金璋紫綬來相趨]’이라고 읊는다.

그런데 이백은 2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미관말직도 못되는 한림대조(翰林待詔) 신분으로 한갓 ‘아름다운 옷에 꽃 같은 얼굴이라. 봄바람에 오염한 자태 드러나네[要想衣裳花想容 春風拂濺露華濃]’ 같은 궁정시만 쓰는 어용시인 노릇을 해야 하는 별 볼일 없는 존재에 거치고 말았다.⁴

결국 천보 4년(744년)에 결국 ‘사금방환(賜金放還, 돈을 주고 돌려 보내는 것)’ 된다. 체면을 살려주는 듯하지만 그것은 분명 임금의 내침임에 틀림없다. 벼슬에서 내쫓음이다. 이것은 ‘하늘이 나를 냈을 때는 꼭 쓸모가 있게 냈다[天生我材必有用]’는 자부심에 넘쳐 크게 쓰이기를 바랐던 이백에게 지대한 타격임에 틀림없다.

4. 양귀비를 노래한 「청평조(淸平調)」 3수 및 「궁중행락사(宮中行樂詞)」 8수, 「시종 의춘원이 조서를 받들어 웅웃에 벼들이 이제 막 푸르른 가운데 피꼬리가 노래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시를 짓다[侍宜春苑奉詔試賦龍池柳色初青 听新鶯百啭歌]」 등도 전형적으로 그간의 사정을 말해준다.

이에 이백은 ‘이 일을 읊노라니 눈물이 옷을 흠뻑 적시네[沉吟此事 淚滿衣]’라 했다. 그리고는 곧 바로 ‘아이들 장난이라 얘기할 바가 못 되네. 나는 거듭되는 한탄 속에 서경을 나가네[几戏不足道 五噫出西京]’라 했다. 자기 합리화로 궁중생활을 한낱 아이들 장난으로 여기며 깊은 탄식과 더불어 장안을 떠난다.

이것은 하나의 유배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종 변상적인 유배. 그런 만큼 이백의 마음은 답답하고 괴롭다. 그는 인생의 ‘행로난(行路難)’을 절실히 느낀다. 「추포가(秋浦歌)」에서는 ‘흰 머리카락 삼천장인 것은 울음이 늘어진 시름 때문이리[白髮三千丈 緣愁似個長], 「어숙화를 모시고 누대에 오름을 노래하다[陪侍御叔華登樓歌]」에서는 ‘검을 뽑아 물을 잘라도 물은 더욱더 흐를 뿐이고 잔을 들어 걱정을 없애려 해도 걱정만 더 클 뿐[抽刀斷水水更流 舉杯銷愁愁更愁]’이라고 했다.

그는 「채산인에게 드림[贈蔡山人]」에 ‘나는 본래 이 세상을 버리지 않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제멋대로 나를 버렸구나[我本不棄世 世人自棄我]’라며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그렇다 해서 비관하거나 실의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장안을 떠나 만유(漫遊, 유유자적 돌아다니다), 아니 선유(仙遊, 신선 같이 돌아다니다)를 한다.

그는 동으로 제로(齊魯), 북으로 적문(薊門), 남으로 오월(吳越)로 근 10년 가까이 선유(仙遊)한다. 「양원음(梁園吟)」의 ‘황금으로 술을 사 아직 돌아가지 못하니 연속해 오백을 부르며 육박을 벌여간다 편을 갈라 술내기하며 해 가는 줄 모르노라 노래하고 또 노래하니 뜻은 멀고 도 멀도다[黃金買醉未能歸 連呼五自行六博 分曹賭酒酣馳暉 歌且謠 意方遠]’와 ‘인생 달관에서 어찌 쓸데없는 수심에 잠기리오. 좋은 술을

마시고 높은 누대에서 취해보자[人生達命豈暇愁, 且飲美酒酣高樓]’
 는 일종의 ‘음주향락(飲酒作樂)’, ‘화무십일홍’, 흥청망청, 노세노세
 의 경지이다.

「장진주(將進酒)」의 ‘아악이나 산해진미 귀한줄 모르겠고 장취하여
 깨어나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 옛날 성현들 명성이 사라져도 술 잘드는
 사람들 이름을 날렸더라[鐘鼓饌玉不足貴 但願長醉不願醒 古來聖賢皆
 寂寞, 惟有飲者留其名]’의 경지에 다름 아니다. ‘예로부터의 성인이나
 현인 나부랭이들 죽고 나면 모두 쓸쓸하나, 오직 술 잘 마시는 자만이
 그 이름 남겼잖는가[古來聖賢皆寂寞 惟有飲者留其名]’라 했던가.

그래서 그는 ‘잔 들어 밝은 달을 맞고 그림자를 마주하니 셋이 친구
 되었네[舉杯邀明月 對影成三人]’처럼 ‘월하독작(月下獨酌, 달 아래 홀
 로 마시며)’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주선(酒仙)’, ‘취성(醉聖)’의 이미
 지와도 걸맞는 듯하다.

그는 어찌면 두보(杜甫)의 「음중팔선가(飲中八仙歌)」의 ‘황제의 부
 르심에도 응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가리켜 술꾼들 가운데서 신선이
 라 일컫는다[天子呼來不上船, 自稱臣是酒中仙]’ 또는 은문규(殷文奎)
 의 「이한림묘를 지나며(經李翰林墓)」의 ‘시중일월주중선(詩中日月酒
 中仙)’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선유(仙遊) 과정에 도술을 담론하고 산수에 정을 붙이기도 한
 다. 「여산요를 시어사 노허주에게 부치노라(廬山謠寄盧侍御虛舟)」에
 ‘나는 본래 초나라 미치광이 봉가를 부르며 공자를 웃었노라. 녹옥장
 (지팡이) 휘두르며 아침에 황학루를 떠나 신선 찾아 오악(五嶽)을 멀다
 않고 일생을 명산 찾아 노닐었더니[我本楚狂人 鳳歌笑孔丘 手持綠玉杖
 朝別黃鶴樓 五嶽尋仙不辭遠 一生好入名山遊]’라고 노래했다.

그는 선유(仙遊)를 한 단락 마친 산동 제주(齊州)에서 아예 북해고천사(北海高天師)로부터 ‘도록(道策)’을 받고 도교에 입적한다. 그래서 정녕 ‘청련거사(靑蓮居士, 이백 스스로의 호)’의 모양새를 갖추기도 한다. 그는 원래부터 도교에 흥취를 느끼고 신선을 찾아다니고 단(丹)을 굽기도 했던 것이다.

그는 일찍이 「감흥(感興)」이라는 시에 ‘15살에 신선과 더불어 놀고 신선이 내게와 쉬기도 했으라[十五遊神仙 遊仙來曾歇]’고 했다. 일종의 ‘구선방도(求仙訪道, 신선과 더불어 놀고 도를 구하다)’이다. 그는 이번 선유(仙遊) 때 자기의 형상을 ‘신선의 약초가 배낭에 가득하고 도교경전이 광주리에 넘친다[仙葯滿囊 道書盈筐]’로 나타낸다.

이때부터 그는 다량의 유선시(遊仙詩)를 창작하기도 한다. 「친구를 만나(友人會宿)’의 ‘천고의 시름을 씻고자 올라앉아 백 병의 술을 마시네[蕩滌千古愁 留連百壺飲]’, 「최초로 열며(草創)’의 ‘금전에 미련 없고 옥황의 손님이 되고 싶다[不向金閨遊 思爲玉皇客]’, 「능양산에 이르러 천주산에 오르다(至陵陽山登天柱石)’의 ‘어느 때 나란히 손 잡고 형해라도 무궁함 속에 들리오[何日可携手 遺形入無窮]’, 「산중문답(山中問答)’의 ‘누가 산에 왜 사느냐고 묻기에……다른 세상이지만 인간 세상은 아니라오[問余何事栖碧山……別有天地非人間]’ 등이 그것이다.

송(宋)대에 갈입방(葛立方)이 「운어양추(韻語陽秋)’에서 ‘이태백의 『고풍』 두 권은 70수에 가까운데 신선경지를 나타낸 것이 거의 13~14수나 된다. 부용을 쥐고 태청을 아우르려 하거나, 두 용을 끼고 휘 저어려 하거나, 옥도에 남아 봉래산에 이르려 하거나, 약목을 꺾어 온 세상을 노닐려 하거나, 왕자진과 사귀려 하거나, 위숙경을 높이 모

시려 하거나, 적송 속에 노니는 백록을 빌어 타려 하거나, 안기에서 금빛을 얻으려 했다[李太白 古風 兩卷近七十篇 身欲爲神仙者殆十三四 或欲把芙蓉而攝太清 或欲挾兩龍而凌倒景 或欲留玉島而蓬山 或欲折若木而游八極 或欲結交王子晉 或欲高揖卫叔卿 或欲借白鹿于赤松 或欲餐金光于安期]고 한 것은 그간의 사정을 얼마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후세인들이 이백에 대해 ‘누워 쉴 때는 꼭 술을 마셨고 행할 때는 술노름을 잊지 않았다. 음풍영월, 천지간에 노닐었어라[卧必酒壺, 行唯酒船 吟風咏月 席地幕天]고 했거나 범전정(范传正)이 「이백신묘비(李白新墓碑)」에서 이백의 시에 대해 ‘풍월이나 산천초목을 읊은 것이 많고 신선과 같은 허망한 이야기가 많다[多在風月草木之間 神仙虛無之說]’라고 지적한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런 만큼 그는 아예 속세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장쾌한 꿈의 여행을 하기도 한다. 「夢遊天姥吟留別(꿈에 천모산에 노닐며 이별을 읊다)」가 바로 그것이다. ‘호고와 거문고 소리에 꽃마차는 돌아오고 신선이 사람에게 가니 칙서가 줄지은 듯하다. 홀연 낮들이 두근거림으로써 남은 낮이 움직이니 황홀함에 놀라워 그저 긴 감탄만 하였다. 생각하여 깨우칠 때 잠자리에 들 수 있고 달아나길 앞설 때 아득한 안개 속을 헤매리라. 세상에 잠시 다녀가며 즐거이 역시 이와 같으니 예로부터 모든 일은 동녘으로 흐르는 물과 같아라. 헤어진 임 떠나갔는데 어찌 돌아올 때를 기다리겠나? 또한 놓으면 흰 사슴과 우거진 벼랑 사이인 것을, 자고로 인생 여행이란 말 타며 명산을 찾는 것인데……[虎鼓瑟兮鸞回车 仙之人兮列如麻 忽魂悸以魄動 恍驚起而長嗟 惟覺時之枕席 失向來之烟霞 世間行樂亦如此 古來萬事東流水 別君去兮何時還 且放白鹿青崖間 須行即騎訪名山……]’라는 기몽시(寄夢詩)로서 실로 ‘해탈천

공(海闊天空, 더 넓은 천하), ‘천마행공(天馬行空, 천마가 하늘 날아 예듯)’의 환상적인 절대 자유의 경지를 펼쳐 보이고 있다. ‘인간세상의 행락도 이와 같거니 예로부터 만사는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과 같더라 [世間行樂亦如此 古來萬事東流水]’는 이 세상을 다 꿰뚫어본 경지다.

이같은 경지는 실로 은문규(殷文奎)가 「경이한림묘(經李翰林墓)」에서 읊은 ‘평지에서 웅비하여 구천에 오른다. 몸은 봉래에 정배와서 부귀영화를 잊었고 화려한 치장을 하고 방장의 옥당 앞에서 노닐어라[平地飛上九天 身論蓬萊金籙外 寶裝方丈玉堂前]’의 경지에 가깝다. 「梁園吟(양원음)」이나 「몽유천모음류별(夢遊天姥吟留別)」을 보면 이백은 마치 속세를 잊은 듯하다.

그러나 사실 그는 잊을 수 없었다. 잘 마시고 잘 놀고 잘 선유(仙遊)하는 것 같지만 「梁園吟(양원음)」의 ‘동산에 높이 누웠다가도 때맞춰 일어나 천하의 백성을 다스리려니 아직 늦지 않았다[東山高臥時起來, 欲濟蒼生未應晚]’나 「몽유천모음류별(夢遊天姥吟留別)」의 ‘어찌 눈웃음 짓고 허리 굽혀 권세자를 섬기며 내 마음의 즐거움을 앗아가게 하리오[安能摧眉折腰事權貴 使我不得開心顏]’처럼 현실의식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사실 그는 「가을날 연약원에서 백발에 부쳐 원씨 여섯 번째 형 임종에게 드림[秋日煉藥院鑷白發贈元六兄林宗]’의 ‘때가 되면 하늘과 사람이 어우러지고 도가 거기에 있거늘 어찌 한탄할소냐……나가고 들어오고 내 마음대로거늘 그 무엇이 나를 시끄럽게 하리오[時來極天人 道在崑吟嘆……卷舒固在我 何事空摧殘]’, 「고풍 12(古風十二)」의 ‘소나무와 잣나무는 원래 고고하고 곧아서 복사꽃과 오얏꽃의 얼굴 모양을 하기 어렵도다……만승의 천자에게 음함며 뵈고 다시 돌아가 부춘산에

살았도다[松柏本孤直 難爲桃李顏……長揖萬乘君 還歸富春山]’ 등을 외웠다.

「의고 12(擬古)」의 ‘쉬파리는 쉽게 구슬을 더럽히고 백설은 잡것과 어울리기 어렵도다 나 이백은 본래 소탈한 성품이라 자주 편벽되다 욕을 먹었네[青蠅易相點 白雪難同調 本是疏散人 屢貽偏足誚(翰林讀書言懷呈集賢諸學士)]로 현실에 대한 도전적 자세를 잃지 않았던 것이다.

「금향에서 위팔을 서경에 보내면서[金鄉送韋八之西京], 「노중에서 이종동생을 서경으로 과거시험 치러 보내면서[魯中送二從弟赴舉之西京]」 등의 시를 보면 그가 당현종과 조정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을 나타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보다시피 이백은 당현종과 조정 및 현실에 대해 모순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 이것은 중국 전통사대부들의 입세(入世)와 출세(出世), 유(儒)와 도(道)의 호보(互補, 상호 보완)를 통한 심리적 평형추구에 다름 아니다.

2) 장기간 야랑에 유배되다(長流夜郎)

위에서 보다시피 이백은 ‘사금방환(賜金放還)’ 후에도 공명심을 버리지 못한다. 그는 당시 다른 한 출세의 방편인 ‘변방(邊塞)’의 길을 택한다. 이른바 변방에서 군복무를 통한 입신양명을 꾀한다. 그래서 그는 변방을 기웃거리다가 유주(幽州)에서 안록산이 반란할 낚새를 알아차리고는 조정에 알리려 하나 당 현종의 그릇된 처사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말았다.

결국 노산(廬山)에 은거하고 만다. 사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

사의 난'이 일어나자 그는 당장 장안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길이 막혀 되돌아오고 만다. 그가 다시 때를 기다리는 판국에 '초빙서가 세 차례에 걸쳐 오나니 인정은 그렇다치더라도 예의가 중요한 만큼 거절하기 어려워라[辟書三至 人輕禮重 嚴期迫切 難以固辭]'라고 「가소공에게 주는 글[與賈少公書]」에 표현한다.

사실 그는 이것을 '사공은 헛된 것이 아니라 창생을 위해 일어났으리[謝公不徒然 起來為蒼生]'며 기회로 여긴다. 그는 기꺼이 영왕(永王) 이린(李璣)의 막하가 된다. 그는 자기 선택의 정당성에 대해 추후의 의심도 없었다. 「영왕동순가 11수(永王東巡歌十一首)」는 그간의 사정을 잘 말해준다.

그런데 이린의 군대가 무너지자 그는 결국 반란 부역죄로 계하수(階下囚, 계단 아래 죄인) 신세가 되고 만다. 참군해서 근근이 두 달여만의 일이다. 심양옥(浚陽獄)에 갇혀 쓴 「최상서에게 올리는 근심에 가득 찬 글[上崔相百憂章]」을 보자. '오만가지 울분이 얽히고 근심걱정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네. 금으로 된 현악기나 옥으로 된 술 주전자는 수심만 자아낼 뿐이네. 술잔 잡고 탄식하나니 술잔에 피눈물만 차네[萬憤結習 忱從中催 金瑟玉壺 盡爲愁媒 舉酒太息 泣血盈杯]'라는 구절은 가련한 신세를 드러내고 있다.

금은보화는 수심만 쌓고, 술 잔 들고 긴 탄식하니 눈물이 피가 되어 잔에 넘친다. 그는 이형(李亨)과 이린(李璣) 두 왕자의 정권쟁탈전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구당서(舊唐書)』 권 190 하 「이백전(李白傳)」에 보면 '영왕이 반란을 꾀했는데 패배하여 이백은 아랑으로 장기간 유배하게 되었다[永王謀亂 兵敗 自坐長流夜郎]'라고 적고 있다.

그의 공명과 충정은 허망하게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니 피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당대조형집(唐大詔令集)』 권 84 「봄날의 영으로 죄수들의 죄를 삭감하거나 면하여 구하다[以春令減降囚徒救]」에 보면 당 숙종지덕(肅宗至德) 2년(757년) 말, ‘천하의 죄인들에 대해 죽을 죄는 유배로 처리하고 유배 이하는 모두 면죄해 준[其天下見禁囚徒 死罪从流 流以下一切放免]’ 원칙 하에 이백은 죽을 죄에서 벗어나 ‘장류야랑(長流夜郎)’ 곧, 오늘날 귀주(貴州)의 동재(桐梓)에 처하게 된다.⁵ 이때 그의 나이 59세였다.

두보(杜甫)는 「음중팔선가(飲中八仙歌)」에서 ‘이백두주시백편(李白斗酒詩百篇)’, 강영도(江盈壽)는 「설도시평(雪濤詩評)」에서 ‘이청련은 쾌활한 사람이다. 그가 득의에 찰 때는 두주백편을 퍼낸다[李青蓮是快

5. 이백의 야랑(夜郎)유배문제에 있어서 학계에서는 유배 시간, 경로 등 문제를 둘러싸고 아직도 의견일치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본고의 논의는 이런 문제해결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어야 할 줄로 안다. 그런 만큼 본고는 어느 한 기본 관점에 쫓아 논의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이백이 유배에서 풀려난 곳을 둘러싸고 학계에는 야랑설, 무산설, 백제설, 투주설 등이 있다. 이것을 야랑까지 갔다는 야랑설과 중도에서 풀려났다는 무산설, 백제설, 투주설로 개괄해볼 수 있다. 앞의 설을 보면 『검기(黔記)』, 장사(張謝) 『속검서(續黔書)』, 『이백지야랑변(李白至夜郎辨)』, 『준의부지·고적(遵義府志·古迹)』, 『속준의부지·고적(續遵義府志·古迹)』, 『중수대백비정기(重修太白碑亭記)』, 청(淸) 『준의부지(遵義府志)』, 『황산곡내집시주(黃山谷內集詩注)』, 권 12, 『桐梓縣志·人物志·輿地志下』, 명·청(明·淸) 『일통지(一統志)』, 청(淸)대 여서창(黎庶昌)의 『졸존원종고·리백지야랑고(拙尊園叢稿·李白至夜郎考)』, 조준률(趙遵律)의 『건적선루기(建谿仙樓記)』에서 확인되는 「백전(白田)」, 「백전패(白田坝)」, 「백전도(白田渡)」, 「태백애(太白崖)」, 「회백당(懷白堂)」, 「태백정(太白亭)」, 「백비대(百碑台)」 등 야랑 지역에 남아 있는 이백 관련 유적, 및 가장 쟁점으로 되고 있는 이백 야랑 유배 시에 나오는 ‘반도(半道)’에 대해 신구(新舊) 『唐書·李白傳』에 이백의 유배 관련 기재에 ‘반도(半道)’라는 말이 없는 점, 그리고 ‘반도(半道)’를 유배가는 도중의 공간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유배 시간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 이외에 현재 실제로 남아있는 유배지 야랑에서 지음직한 「남류야랑기내(南流夜郎寄內)」, 「류야랑영화사기심양군관(流夜郎永華寺寄尋陽群官)」, 「류야랑지서새석기배은(流夜郎至西塞釋寄裴隱)」 등 시에 근거하여 논지를 펴고 있다. 뒤의 설은 일찍 송(宋)대의 증공(曾巩)이 「리태백문집후서(李太白文集後序)」에서 ‘지무산(巫巫山)’, 이사득석(以赦得釋)의 관점을 편 이래 명(明)대 양승암(楊升庵)의 『이시선제사(李詩選題辭)』, 청(淸)대 왕탁애(王琢崖)의 『이태백년보(李太白年譜)』 및 주준성(朱駿聲)의 『당이백소전(唐李白小傳)』, 그리고 현대의 곽말약(郭沫若)의 『이백두보연표(李白杜甫年表)』, 첨영(詹瑛)의 『이백시문계년(李白詩文系年)』, 안기(安旗)·설천위(薛天緯)의 『이백연보(李白年譜)』 등에서 주로 「조발백제성(朱發白帝城)」 시, 「류야랑반도승은방환겸은극부지미서회시식수재(流夜郎半道承恩放還兼欣克復之美書懷示息秀才)」라는 시제목에서 ‘반도(半道)」, 그리고 「금년구방무산양(今年救放巫山陽)」 시구에 근거하여 논지를 펴고 있다. 본고에서는 앞의 ‘야랑설’에 따르도록 한다.

活人 当其得意 斗酒百篇]’라 했다.

이백은 워낙 술을 좋아한지라 상당히 많은 시를 지었다. 이백은 만여 수의 시를 지은 것으로 집계된다. 그런데 이백의 시는 스스로도 말하듯 시피 10중 8,9는 분실되었다. 그래서 현재 900여 수 남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백은 야랑(夜郎) 유배시 상대적으로 시를 적게 창작한다. 약 30수 좌우로 파악된다. 강영도는 「설도시평」에서 그것은 ‘흥취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양으로부터 술에 찌든 상태에서 돌아와 왕명존에게 부치다[自漢陽病酒歸寄王明存]에서 ‘작년에 야랑 길로 좌천되어 갔는데 유리 연적의 묵물은 항상 말라 있었으라. 금년에 무산 남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교룡이 노니는 듯 붓 끝이 빛났으라[去年左迁夜郎道 琉璃硯水長枯稿 今年救放巫山陽 蛟龍筆翰生輝光]’고 한 것도 보면 이백은 작년에 야랑 유배 길에 오름과 금년에 유배 길에서 풀려남에 따라 창작의 고갈 혹은 왕성 여부를 이야기한 것은 그간의 사정을 잘 말해 주기도 한다.

이백은 실로 기분과다. 분위기에 많이 놀아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야랑 유배시는 양은 적지만 질적으로는 상당한 수준급으로서 다른 시기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 시기 시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백에게 있어서 야랑으로의 유배는 절치부심의 빠져린 것이었다. 야랑 유배는 그에게 있어서 실로 ‘장류(長流)’에 ‘장수(長愁, 오랜 수심)’를 불러일으키고 ‘원별(遠別, 멀리 갈라지다)’을 강요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유배시 제목에서조차 ‘유야랑(流夜郎)’이라는 글자를 박아 넣는다.

예컨대 「류야랑제규엽(流夜郎題葵葉, 야랑으로 유배 가는 도중 계엽에서 붓을 들다)」, 「남류야랑기내(南流夜郎寄內, 남쪽으로 야랑으로 유배 가는 도중 아내에게 부치다)」, 「류야랑영화사기심양군관(流夜郎永華寺寄尋陽群官, 야랑으로 유배 가는 도중 영화사에서 심양의 여러 관리들에게 부치다)」, 「류야랑지서새역기배은(流夜郎至西塞驛寄裴隱, 야랑으로 유배 가는 도중 서세에 이르러 배은에게 부치다)」, 「류야랑증신판관(流夜郎贈辛判官, 야랑으로 유배 가는 도중 신판관에게 드리다)」, 「류야랑서회시식수재(流夜郎書懷示息秀才, 야랑으로 유배 가는 도중 회포를 읊어 식수재에게 보이다)」, 「류야랑배연흥덕사남각(流夜郎陪宴興德寺南閣, 야랑으로 유배 가는 도중 흥덕사 남쪽 누각에서 연회에 들다)」 등이다.

이번 ‘장류야랑(長流夜郎)’은 실로 이백에게 충격적이었다. 「명응행(鳴雁行)에 보면 ‘객지의 수심 속에 상옥에게 부치고 능연각에 눈 내리니 몸이 여위어가라. 위험천만한 곳에서 서로 놀라 부르고 빈 활시위 소리만 들어만 간담이 서늘하네. 그러니 실제로 쏘지 않아도 되리[客居煙波寄湘吳 凌煙觸雪毛體枯 畏逢增繳驚相呼 聞弦虛墜良可吁 君更彈射何爲乎]’라며 자기 스스로를 빗맞아 놀란 새에 빗대고 있다.

이백은 어리벉벉한 속에 심양옥(浔陽獄)에 구금되어 있을 때 여러모로 친지나 친구들을 통하여 구출을 모색한다. 「진정증우인(陳情贈友人, 사정을 토로하여 친구에게 알리다)」에 보면 ‘바라건대 동쪽 이웃의 한 점 양초 빛을 빌어 남은 빛으로 가난한 직녀 같은 나를 비춰주소[願借東輝壁 餘光照貧女]’, 그리고 「天馬歌(천마가)」에 보면 ‘오월의 엄한 서리는 계수나무도 시들게 하니 규우에 얹어져 원통함을 머금음과 두 눈썹 찌푸린다. 그대에게 청하노니, 천자에게 내 몸을 되사시면 여

전히 그림자와 늘면서 요지에서 춤을 추리라[嚴霜五月凋桂枝 伏櫪銜冤 摧兩眉 請君贖獻穆天子 猶堪弄影舞瑤池] 등을 보면 가련하다 못해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나는 영명한 군주에게 감사를 드리며 슬픔을 머금고 야랑으로 떠난다[而我謝明主 銜哀投夜郎]’는 「증류도사(贈劉都使, 유도사에게 드리다)」에서처럼 임금의 밤으신 처사에 감사하며 눈물을 머금고 야랑 유배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류야랑문취불예(流夜郎聞醉不預, 야랑 유배지에서 풀려나지 못함을 듣고 취하다)」에 보면, ‘북쪽 궁일의 성인은 태평성세를 노래하고 남쪽의 죄진 군자는 황량한 곳으로 쫓겨가네. 취한 속에 울려 퍼지는 하늘 음악을 한 자락 잡아 야랑으로 날려 보냈으면[北關聖人歌大康 南冠君子竄遐荒 漢醉聞秦鈞 天樂 愿得風吹到夜郎]’이라 하여 이미 난은 평정되고 태평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유배에 대해 거부감 없는 달가운 태도를 나타내며 바람이 자기를 야랑까지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는 이별의 짙은 애수에 잠긴다. 「기왕한양(寄王漢陽, 왕한양에게 부치다)」의 ‘피리소리 오악에 퍼지고 노래 소리 하늘 끝에 울려 퍼지라. 갈라진 후 수심만 더 해 가고 상사의 정은 눈 앞에 아물아물하네[笛聲渲汚鄂 歌曲上雲霄 別後空愁我 相思一水遙]’와 「강하별송지제송지체(江夏別宋之梯宋之涕, 강하에서 송지제를 이별하며)」 쓴 ‘빼꾸기는 맑은 날을 노래하고 강녘의 원숭이는 저녁 바람을 노래하네. 평생 눈물을 모르건만 여기서 한 없는 눈물을 흘리네[谷鳥吟晴日 江猿嘯晚風 平生不下泪 于此泣無窮]’를 보면 눈물 범벅이 되어 제 정신이 아니다.

「유야랑증신판관(流夜郎贈辛判官, 야랑으로 유배가며 신판관에게 보내다)」에는 ‘옛날 장안에 있으면서 꽃과 버들에 취해 놀며 오후 칠

귀들과 술자리 같이 했었다. 의기는 높아 호걸들을 능가하고 풍류도 남에게 뒤지려고 하지 않았다……함곡관에서 있다가 오랑캐 침입에 문득 놀라 장안의 복숭아와 오얏꽃은 누구 위해 피었나. 내 근심은 멀리 야랑 지방으로 귀양 가는 것이니 어느 날에야 금의환향 하며 돌아올까[昔在長安醉花柳 五侯七貴同杯酒 氣岸遙凌豪士前 風流肯落他人後……函谷忽驚胡馬來 秦宮桃李向明開 我愁遠謫夜郎去 何日金鷄放赦回] 하며 지난날의 부귀영화에 대비되는 오늘날의 멀리 야랑으로의 유배에 대해 한없는 수심에 잠긴다. 언제 사면될지 아득하지만 그래도 왕명은 지엄한 지라 유배길은 울며 겨자 먹기로도 가야 했다.

야랑은 당(唐)나라 때까지만 해도 인적이 드문 황량한 곳으로 유배길조차 힘에 겹다. 「강하증위남릉빙(江夏贈韋南陵冰, 강하에서 위남의 능빙에게 주다)」의 ‘그대는 장액을 위하여 주천으로 가고 나는 삼과 9천리 밖으로 쫓겨가네[君爲張掖近酒泉 我竄三巴九千里]’, 「류별공처사(留別龔處士, 공처사와 갈라지며)」의 ‘나는 황우협을 떠나 멀리 백제 원숭이를 서러워하노라[我去黃牛峽 遙愁白帝猿]’, 「경란리후천은류야랑억구유서회증강하위태수양재(經亂離後天恩流夜郎憶舊游書懷贈江夏韋太守良宰, 난리를 치른 후 황은을 입고 야랑에 유배되었는데 이전에 노닐던 것을 그리며 강하의 위태수 양재에게 드리다)」의 ‘삼협에서 야랑까지 만리길, 서쪽으로 가는 길은 사람을 늙게 하노라[三峽夜郎萬里道 西上令人老]’ 등의 시에서는 바로 야랑으로 가는 도중 삼협(三峽)에서의 간난신고를 토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유배길은 친인이나 지인이 있어 그래도 안위가 된다. 「찬야랑우오강류별종십육(竄夜郎于烏江留別宗十六, 야랑으로 쫓겨 가는 도중 오강에서 종십육과 갈라지며)」은 이백이 처남 종경(宗璟)과 갈라지

면서 지은 시다. ‘나는 동상인이 아니거늘 그녀들을 아름답게 할 수 없다. 곳곳으로 방랑하며 출세는커녕 헛이름으로 경성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하늘로부터 적당되어 야랑에서 슬픔에 잠겨있네. 졸처는 막야짐을 가지고 이 두 용을 따라 갔어라. 낭군의 고달픔을 헤아려 천리 길을 따라 왔네. 백제에 아침이 오자 원숭이는 울음을 그치고 황소는 객지를 지나네. 멀리 명월협을 바라보니 서쪽을 떠나가는 그 모습 더욱 그리워라[我非東床人 令姊忝齊眉 浪迹未出世 空名動京師 謫遭云羅解 翻謫夜郎悲 拙妻莫邪劍 及及此二龍隨 慚君湍波苦 千里遠從之 白帝曉猿斷 黃牛過客遲 遙瞻明月峽 西去益相思]’라고 한 이 시에서는 자기를 바래준 아내 및 처남 중경이 동쪽으로 자기를 떠난 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상상한다.

그래서 ‘백제효원단 황우과객지[白帝曉猿斷 黃牛過客遲, 백제에 아침이 오자 원숭이는 울음을 그치고 황소는 객지를 지나네]’라 한다. 이에 반해 자기는 이제 곧 서쪽으로 명월협(明月峽)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내 및 처남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 사무친다. 그래서 ‘요침명월협 서거익상사(遙瞻明月峽 西去益相思, 멀리 명월협을 바라보니 서쪽을 떠나가는 그 모습 더욱 그리워라)’라 한다.

이백은 유주남평군(渝州南平郡, 오늘날 중경시)에서 사촌동생 남평태수 지요(之遙)의 푸짐한 접대를 받았다. 그래서 그는 「중중제남평태수지요 2수(贈從弟南平太守之遙二首, 사촌 동생 남평태수 지요에게 주다 2수)」를 짓는다. 이 시에 대해 이백은 스스로 ‘남평에서 술을 너무 마셔 무능으로 쫓기다[南平時因飲酒過度 貶武陵]’라고 유머스레 주를 단다. ‘적당된 관리는 도원을 떠나고 꽃을 찾아 여러 곳을 다니다[謫官桃源去, 尋花几處行]’라는 시구는 이것에 대한 좋은 주석이다.

이런 친인들이 있어 희망의 끈은 이어진다. 그리고 유배길 숙박지에서 지인들의 초대와 위로는 점점 밝은 기분으로 돌아서게 한다. 「류별정판관(留別鄭判官, 정판관과 갈라지며)」, 「류야랑지서새역기배은(流夜郎至西塞驛寄裴隱, 야랑으로 유배 가는 도중 서세역에 도착하여 배은에게 부치다)」, 「여사랑중흠은황학루상취적(與史郎中欽听黃鶴樓上吹笛, 사랑 중흠과 더불어 황학루에서 피리소리를 들으며)」 등의 시는 그 보기가 되겠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한다. 「여제공송진랑장귀형양병서(與諸公送陳郎將歸衡陽并序, 여러 분들과 진랑장을 형양으로 보내며 서를 아울러)」⁶를 보면 ‘중니는 여로에 고생하고 문왕은 오랑개 취급을 받았네. 시기를 잘 못 만나면 성현도 아래 사람 취급을 당하네. 하물며 나의 불초함은 저 멀리 쫓겨 가고 몰골이 초라하게 내 본래 모습을 잃었네. 아침이 되어도 마음이 개운하지 못하니 저녁에는 백발이 되고 마네. 높은데 올라 멀리까지 바라주나니 수십만 더 해가네[布仲尼旅人 文王明夷 苟非其時 聖賢低眉 況仆之不肖者, 而迁逐枯槁 固非其直 朝心不开 暮發盡白 而登高送遠 使人增愁]’라며 공자와 주문왕 같은 성인들도 시대를 잘 못 만나 곤핍하고 어려웠음을 들어 자기의 여위어가고 머리발이 쇠어빠지는 서글픈 신세를 위로하고 있다.

「류별가사인(留別賈舍人, 가사인과 갈라지며)」에서는 ‘그대는 장사객이 되고 나는 홀로 야랑으로 가는 신세가 되었네[君爲長沙客 我獨之夜郎]’로 역시 유배를 당했던 가의(賈誼)에 부쳐 자기의 야랑 길을 위로

6. 「문원영화(文苑英華)」와 「당문수(唐文粹)」에서는 「춘자남포여제공송진랑장귀형양서(春子南浦與諸公送陳郎將歸衡岳序)」라는 제목으로 수록하고 있다.

받고 있다.

자연도 서글픈 심사를 달래준다. 「류야랑지강하배장사숙급설명부연 흥덕사남각(流夜郎至江夏陪長史叔及薛明府宴興德寺南閣, 야랑으로 유배 가는 도중 강하에 이르러 장사숙과 설명부를 모시고 흥덕사 남쪽 누각에서 연회에 참가하다)」을 보자. ‘감전이 장강에 걸쳐있고 청산은 면경 속에 비끼네. 구불구불한 강언덕에 모래는 끝없이 펼쳐지고 해는 물에 헛되어 비치네(紺殿橫江上 青山落鏡中 岸回沙不盡 日映水成空)’, 장강에 배를 타고 가는데 청산은 면경 같은 강물에 비치고 물의 백사장은 끝없이 이어진다. 그리고 해는 물에 어려 반짝인다. 그래서 기분이 점점 밝아진다. 이런 산수자연은 이백에게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준다.

그런데 이 자연은 결국 도연명(陶淵明)의 귀은(歸隱)의 뜻에 따르려는 기탁물에 다름 아니었다. 「문왕창령좌천룡표요유차기(聞王昌齡左遷龍標遙有此寄, 왕창령이 용표위로 좌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부치다)」에서는 ‘양주는 꽃이 지고 땀구기 우짖는데 듣자니 왕용표가 오게 거너 간다 하네. 밝은 달과 함께 보내는 이내 걱정이 그대 따라 곧바로 야랑 서쪽에 이르기를[揚花落盡子規啼 聞道龍標過五溪 我寄愁心與明月 隨君直到夜郎西]’로 왕창령(王昌齡)이 용표위(龍標尉)로 좌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로써 인간적인 깊은 동정을 보내고 있다.

「류야랑제규엽(流夜郎題葵葉, 야랑 유배길에 해바라기 잎을 보고 짓다)」에서 이백은 ‘그대의 든든한 발 보는 것이 부끄러워 뿌리 뽑혀 먼 곳으로 떠나는 걸 탄식하네. 저 하늘의 밝은 빛 가림 없이 비춘다면 고향으로 돌아가 논밭을 지키리라[慚君能衛足 嘆我遠移根 白日如分照 還歸守故園]’며 유배 와 있는 자기 스스로를 꽃 피고 열매 맺고 잎으로 뿌리를 보호하는 해바라기보다 못하다며 비감에 잠겨 있다. 하지만 ‘낙

엽귀근(落葉歸根, 낙엽은 뿌리로 돌아간다)', '호사수구(狐死首丘, 여우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바라보며 죽는다)'의 회귀본능 또한 드러나 있다. 또한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희망과 사면 이후 정치를 그만두고 은거하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장류야랑(長流夜郎)', 실로 억울하고 원통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갈마드는 것은 일종 숙명론적인 분위기이다. 「공성작(空城雀)」에 보이는 '존망임대균(存亡任大鈞, 삶과 죽음을 자연의 이치에 맡겨버리리라)' 과 '천명유정단 수분절소욕(天命有定端 守分絕所欲, 천명은 정해진 바가 있으니 분수를 지키며 하고자 하는 바를 끊어야 한단다)' 은 보기가 되겠다.

그렇다 하여 이백은 현실 참여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 그는 의식무의식 간에 현실 참여의식을 짓궂게 내비치고 있다. 「경란리 후천은류야랑억구유서회증강하위태수량재(經亂離後天恩流夜郎憶舊遊書懷贈江夏韋太守良宰)」를 보면 '천지를 둘러보건대 전쟁이 끊일 사이 없구나. 패왕이 되겠다고 물불을 가리지 않네. 시절이 하도 잘못 되었으니 모든 것을 버리고 바다로 나가고 싶다[天地賭一擲 未能忘戰爭 試涉霸王略 將期軒冕榮 時命乃大謬 棄之海上行]' 고 하여 자기는 나라가 전쟁에 빠진 것을 한시도 잊지 않은 것으로 임금을 도와 천하를 평정할 뜻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기를 잘 못 만나 임금의 눈에 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하여 '중원의 군대와 오랑캐 병사들이 이어지고 모래바람이 구름처럼 일어나네. 초목은 살기에 흔들리고 별은 빛을 잃었네. 백골이 산처럼 쌓이나니 백성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두 성군은 밖으로 나가 노닐고 두 경성은 폐허가 되다. 인심은 떠나가고 도적들의 기세는

비바람을 일으키네[漢甲連胡兵 沙塵暗雲海 草木搖殺氣 星辰無光彩 白骨成丘山 蒼生竟何罪……二聖出遊豫 兩京遂丘墟……人心失去就 賊勢騰風雨] 라며 당시 ‘안사의 난’의 참상을 이야기하면서 ‘백골성구산(白骨成丘山) 창생경하죄(蒼生竟何罪)’에 이르러서는 강한 현실 문제의식을 나타내며 짙은 인도주의색채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외에 「대기정 초사체(代寄情楚辭體, 초사체에 대신 정을 기탁하다)」는 이백이 초사(楚辭)의 연군지사(戀君之詞) 형식을 빌어 군신지의를 나타내고 있다.

인지상지, 이백은 유배지에서 사면을 학수고대한다. 『구당서(舊唐書)』 「숙종본기(肅宗本紀)와 『資治通鑑』 권220에 보면 건원(乾元) 원년(757년) 12월 15일에 당 숙종이 등극 후 첫 대사면을 한다. 이백은 이 대사면에 들지 못했다. 이에 이백은 사면 소리를 들었으나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장사국을 외롭게 버리고 3년 동안 돌아갈 수 없었네. 언제 선실에 들어 다시 낙양의 인재를 논하리?[獨棄長沙國 三年未許回 何時入宣室 更問洛陽才]’ 라며 실로 앞이 보이는 않는 한없는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다.

「앵무주(鸚鵡洲)」의 ‘연기 걷히자 따뜻한 바람에 난초 잎 향기 풍겨 오고 양 언덕의 복사꽃 비단 물결 이는구나. 이러한 때에 떠도는 나그네 부질없이 눈을 치뜨니 긴 모래섬에 외로운 달은 누구를 향하여 밝은가[煙開蘭葉香風暖 岸夾桃花錦浪生 遷客此時徒極目 長洲孤月向誰明]’에서는 사면을 기다리다 못해 아예 실망하고 만다. 「류야랑지서새취기배은(流夜郎至西塞驛寄裴隱)」의 ‘우레나 비라도 만나 초라한 물골을 떨쳐버렸으면[我行望雷雨 安得沾枯散]’에서도 같은 심사를 나타내고 있다. 「9일 용산음(九日龍山飲)」, 「9월 10일 즉사(九月十日即事)」 같은 시도 마찬가지다. 이백에게 있어 사면은 그만큼 절실했던 것이다.

이백은 건원 2년 봄, 제2차 대사면 때 풀려난다. 이에 이백은 「경난 리후친은류야낭억구유서회증강하위태수량재(經亂離後天恩流夜郎憶舊游書懷贈江夏韋太守良宰)」에서 ‘따뜻한 기운이 찬 골짜기를 녹이고 불씨가 죽은 재를 살리다[暖氣變寒谷 炎煙生死灰]’라며 자신의 사면을 얻었던 산골짜기를 녹이고 사그러진 불을 되살리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류야낭반도승은방환검흔극복지미서회시식수재(流夜郎半道承恩放還兼欣克復之美書懷示息秀才)」에서 ‘꼭 마치 갇혔던 새가 조롱에서 풀려나듯[曠如鳥出籠]’이라며 갇혔던 새가 풀려나는 그런 통쾌함으로 느꼈다.

그리고 사면의 희열은 귀로에로 이어진다. 이백 만년의 가장 활달하고 밝은 색채의 「조발백제성(早發白帝城, 아침에 백제성을 떠나)은 바로 이 사면의 연장선상에서 생산되었다. ‘아침에 채색 구름 어린 백제성을 떠나서 천 리 되는 강릉 땅에 하루 만에 돌아왔네. 양쪽 언덕의 원숭이 울음소리 계속 들으며 가벼운 배 이미 겹겹이 펼쳐진 산을 지나왔네[朝辭白帝彩雲間 千里江陵一日還 兩岸猿聲啼不住 輕舟已過萬重山]’라는 이 시는 살 같이 달리는 배에 기탁하여 한량없이 즐거운 마음 및 한시바빠 돌아가고픈 시인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백은 「억추포도화(憶秋浦桃花, 추포의 도화를 그리다)」에서 ‘3년 만에 야랑에서 돌아오니 금쪽같이 굳은 뼈로 단련되었으라[三載夜郎還, 于茲煉金骨]’며 3년간의 야랑 유배생활을 심신을 단련한 좋은 기회로 여기며 회심의 미소를 짓기도 한다.

이백은 건원 2년 봄⁷ ‘장류야랑(長流夜郎)’에서 풀려난다. 그런데 풀려나서 얼마 되지 않아 죽는다. 그는 임종 전 마지막으로 「증중제선주장사소(贈從弟宣州長史昭, 사촌 동생 선주장사 조에게 주다)」라는 시를 남긴다. ‘재장이 성군과 만나지 못하고 이름이 시대에 어울리지 못해 홀로 산천에 노닐고 성명대에 헛되이 뜻을 흘려보냈더라[才將聖不偶 名與時俱背 獨立山海間 空志聖明代]’고 하며 자기의 인생을 심히 부정적으로 본다. 실로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것이었다. 물론 이 파란만장 속에는 ‘장류야랑(長流夜郎)’이 인생 말년에 가장 치명적인 한 충격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굴원(屈原)처럼 ‘충이피소(忠而被疏, 충성스러웠지만 소외를 당함)’했기 때문이다. 당나라 때 향사(項斯)가 「경리백묘(經李白墓, 이백묘를 지나며)」라는 시에서 ‘야랑에서 돌아온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강가에서 취해 죽었으라[夜郎歸未老 醉死此江邊]’라고 한 것은 야랑 유배를 둘러싼 이백의 인생역경의 치명타를 잘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3. ‘장류야랑(長流夜郎)’ 유배시에 대한 비교문학적 고찰

이상 ‘사금방환(賜金放還)’ 후 시를 준유배시라 한다면 ‘장류야랑(長流夜郎)’ 관련 시는 본격적인 유배시라 할 수 있겠다.

그럼 아래에 ‘장류야랑’ 관련 유배시를 ‘사금방환’ 전후 인생 ‘순

7. 물론 당 숙종 건원 2년 4월 중순, 또는 상원 원년 여름이라는 설도 있다. 유배 출발시간문제를 둘러싸고도 당 숙종 지덕 2년 겨울, 혹은 건원 원년 봄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유배 시간에 대해서도 엇갈리고 있다.

경(順境)’ 때의 시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그 특색을 좀 더 분명히 고찰해 보도록 하자.

전반적으로 볼 때 야랑 유배시에는 ‘고주(孤舟, 외로운 배), ‘한로(寒露, 찬 이슬), ‘루진(淚盡, 눈물이 다 하다), ‘심취(心摧, 마음이 상하다) 등 외롭고 감상적인 이미지이다.

그리고 ‘허구픈 세월에 그대는 스스로 아끼고 나는 누구 때문에 쫓겨났지[蹉跎君自惜 竄逐我因誰], ‘그대에게 권사초를 드리나니 애가 끊어지는 이 신세 무엇을 이야기하리오[贈君卷施草 心斷竟何言], ‘슬픔을 삼키며 고국을 생각하고 흐르는 눈물을 누가 훔쳐 주리오[含悲想舊國 泣下誰能揮], ‘2년을 호숫가에서 읊어 초췌한데 언제 돌아가리[二年吟澤畔 憔悴幾時回], 등 앞날이 묘연하고 짙은 애수가 배어나오는 영탄조의 시구가 많다.

이는 이전의 ‘달을 따려고 청천에 오른 장사[攬月上青天的壯士], ‘9만리를 날아예는 대붕[展翅九万里的大鵬], ‘내달고 포효하는 황하[奔騰咆哮的黃河], ‘가파르게 치솟은 산봉우리[崢嶸挺拔的山峰], ‘향기를 풍기는 술[飄逸的酒], ‘환영이 넘치는 신선[虛幻的仙], ‘독행하는 천마[獨行的天馬], ‘도고한 봉황[孤高的駕鳳] 등 시적 이미지나 ‘절세의 뛰어난[英武絕世], ‘아름답고 도고한 자세[縱姿傲岸], ‘구름과 바람을 휘잡아 노니는 표연함[飄飄然有凌雲馭風之感] (이조원의 『중각이태백전집서(重刻李太白全集序)』에 나오는 시구와는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야랑 유배시는 지난날의 자신감과 낙관 및 호매로운 기개는 다 어디로 가고 잦아든 분위기 속에서 짙은 우수, 비탄만 안겨올 뿐이다. 「경난리후천은류야낭억구유서회증강하위태수량재經亂離後天恩流夜郎憶

舊游書懷贈江夏韋太守良宰」의 ‘패왕이 되겠다고 물불을 가리지 않네, 시절이 하도 잘못 되었으니 모든 것을 버리고 바다로 나가고 싶다. 검술을 배워 이리저리 휘둘러보거늘 글은 언제 되리오. 검은 만인을 막지 못하지만 글은 세상의 목소리를 담네. 아이들 장난처럼 말할 바 아니네. 나는 서경을 벗어나네. 떠나가려고 하니 비분강개한 눈물이 옷깃을 적시네[試涉霸王略 將期軒冕榮 時命乃大謬 棄之海上行 學劍翻自哂 爲文竟何成 劍非萬人敵 文竊四海聲 兒戲不足道 五噫出西京 臨當欲去時 慷慨淚沾纓] 를 보면 눈을 자기한테 돌려 겸손한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충화하기에 바쁘다. 솔직하게 자기는 임금도 잘 못 섬길 뿐만 아니라 친지들도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는 이전에 「대수산답맹소부이문서(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 수산을 대신하여 맹소부 이문에게 답하는 글)」에서 ‘근자에 멋진 이백이 ami 산으로부터 왔다. 본인은 하늘이 용납하고 도적인 모습을 갖추었다. 본인 스스로를 굽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간섭하지도 않는다. 나 같은 초유 이래로 나 한 사람 뿐이다. 신관안의 주장과 제왕술을 떨쳐 임금을 보필하고 싶다. 그리하여 세상이 질서가 잡히고 온 천하가 통일 되게 하겠다. 따라서 임금을 모시는 도가 바로 서고 부모를 모시는 의가 드러나게 하겠다. 그런 후에 도주, 유후와 더불어 호수에 배를 띄워 노닐고 천하를 노닐리. 이 모든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近者逸人李白自峨嵋而來 尔其天爲容 道爲貌 不屈己 不干人 巢由以來 一人而已……申管晏之談 謀帝王之術 奮其智能 原爲輔弼 使寰區大定 海县清一 事君之道成 榮亲之义毕 然後與陶朱 留侯 泛王湖 戏沧洲 不足爲難也……]’ 라고 하여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며 도고하고 하늘을 찌를 듯한

기움을 토하는 것과 사뭇 대비된다.

서로 주고받는 증답시만 보아도 야랑 유배시의 경우, 「류야랑영화사 기심양군관(流夜郎永華寺 寄尋陽群官, 야랑의 영화사 유배 중 심양군 관에게 부치다)의 ‘아침에 능연루를 떠나니 배에 현명하고 호걸스러운 분들이 가득하여라. 저녁에 영화사에 머물었는데 모두들 흠어져가고 나 혼자 취하였으라. 구강의 흐름을 동결시켜 만갈래 눈물로 흐르게 하리. 내 뜻을 적어 여악에 부치나니 언제 이곳에 오겠는지? 천명은 유한한데 어찌 수심뿐이나?〔朝別凌煙樓 賢豪滿行舟 暝投永華寺 賓散子獨醉 願結九江流 添成萬行淚 寫意寄廬岳 何當來此地 天命有所懸 安得苦愁思〕나 「증별정판관(贈別鄭判官, 정판관과 갈라지며 주다)의 ‘쫓겨 간다고 서러워 마라라. 부끄러운 대로 그대에게 절후를 묻노라. 2년 동안 호수가에서 읊었나니 초췌한 모습에 언제 돌아가리?〔竄逐勿提哀 慚君問寒灰 二年吟澤畔 憔悴几時回〕나 「강하사군속석상증사낭중(江夏使君叔席上贈史郎中, 강하에서 사군속 석상에서 사랑중에게 주다)의 ‘고갈된 데서 물흐름을 생각하고 뜬 구름은 옛 거처를 잃었구나. 부귀영화를 부끄러이 여기고 유배당한 신하를……〔涸轍思流水 浮雲失舊居 多慚華省貴 不以逐臣疏……〕을 보면 남의 문턱에 기거하는 가련한 모습을 나타내며 모든 것을 운명에 맡겨 체념하고 비탄에 빠져 있는 무기력상을 보인다.

이는 이전 「증역수재(贈易秀才, 역수재에게 주다)의 ‘소년은 긴 칼을 끌러 주고 이별하네. 어찌 서우뿔을 끊어보지 않았어라. 빛나는 칼날 옛날을 무색케 하네〔少年解長劍 投贈即分離 何不斷犀象 精光暗往時〕나 「유별(留別)의 ‘역수에서의 이별을 부끄러워하기를 갈라짐에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지네〔耻作易水別 臨歧泪滂沱〕나 「객중행(客中

行)의 ‘주인이 나로 하여 취하게 할 수 있다면 어느 곳이 타향인지 알 수 없게 되면만[但使主人能醉客 不知何處是他鄉] 같은 증별사에서 보 다시피 진취적이고 낙관적이며 사람을 분별케 하는 경우와 전혀 다르다.

이백의 야랑 유배시는 비탄과 수심과 눈물로 얼룩져 있다. 「추석여회(秋夕旅懷)」의 ‘찬 바람이 가을 바다를 스치니 향수에 젖게 하네. 이 어진 산맥은 끝이 없고 흐르는 물은 언제 돌아오리. 눈은 뜬 구름에 가 닿고 마음은 밝은 달빛을 재단하네. 방초는 사라지고 흰 이슬은 겨울 옷을 재촉하네. 긴 꿈속에 은하수는 떨어지고 깨어보니 하늘의 별은 성 기네. 슬픔을 머금고 옛 고향을 생각하나니 흐르는 눈물을 누가 거두어 주리오[涼風度秋海 吹我鄉思飛 連山去無際 流水何時歸 目極浮雲色 心斷明月暉 芳草歇柔豔 白露催寒衣 夢長銀漢落 覺罷天星稀 含悲想舊國 泣下誰能揮]’에는 ‘적선인(謫仙人)’, ‘취선옹(醉仙翁)’의 풍채는 언녕 사그라지고 말았다. 선(仙)적인 해탈이나 주(酒)의 마취 및 ‘노세 노세’의 타령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때는 나이도 많이 먹어 마음이 약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마음을 비우고 모든 잘 못은 자기 스스로에게 돌리며 근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강하(江夏)에 도착하여 이미 고인이 된 이기(李崱)의 고택에서 지은 시를 잠깐 보자. ‘빈 마당에 옥나무가 없고 높은 전당에는 유인이 앉았 어라... 평생 복숭아나무와 살구나무를 심었는데 적막하여 봄을 이루지 못하네.[空庭無玉樹 高殿坐幽人……平生種桃李 寂滅不成春]’ 여기에는 현실에 대한 희망이나 환상보다는 무능력감이 내비치고 있으며 내심으로 잦아든 차분한 적막감을 준다.

이에 비해 이전의 시는 현실의 부정부패에 분노하고 임금도 우습게

보며 ‘감히 황제를 말에서 끌어내리려[敢把黃帝拉下馬]’ 하는 기고만장의 내 멋대로의 기개를 보였다. 「서회증남릉상찬부(書懷贈南陵常贊府, 회포를 적어 남릉의 상찬부에게 주다)」의 ‘그대는 나의 재능을 알아주어 노중니 같다 하네. 대성인도 시대를 잘 만나지 못하거늘 소생이 뭐 서러워하랴! [君看我才能 何似魯仲尼 大聖猶不遇 小儒安是悲]’, 「행로난(行路難)」의 ‘큰 길이 푸른 하늘 같은데 나만 홀로 나가지 못하네. 부끄럽구나, 장안 부잣집 도령을 쫓아다니며 닭싸움, 개 시합에 먹을 것 내기하는 것이[大道如青天 我獨不得出 羞逐長安社中兒 赤鷄白狗賭梨栗]’ 그 보기가 되겠다.

「기아거자(棄我去者,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라는 시를 좀 구체적으로 보자. ‘날 버리고 떠난 것은 어제의 시간이니 붙잡지 못하고 내 마음 흔들어 놓는 것 오늘의 시간이니 근심과 번뇌 많네. 긴 바람 만 리에서 불어와 가을 기러기 보내니 높은 누각에서 술 즐길 만하네. 그대는 봉래의 문장과 건안의 기품을 갖추었고 소사 같은 청신한 재주 지녔어라. 빼어난 흥취를 품고 장엄한 뜻을 날리니 푸른 하늘에 올라 밝은 달을 잡으려는 것 같구나. 칼 빼어 물을 베어도 물은 다시 흐르고 잔 들어 삭여도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네. 인생살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내일 아침 머리 푼 채 조각배나 띄워볼거나. [棄我去者 昨日之日不可留 亂我心者 今日之日多煩憂 長風萬里送秋雁 對此可以甘高樓 蓬萊文章建安骨 中間小謝又清發 俱懷逸興壯思飛 欲上天攬明月 抽刀斷水水更流 舉杯銷愁更愁 人生在世不稱意 明朝散髮弄扁舟]’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는 비분강개함이 기고만장하고 안하무인격인 그의 기개를 타고 화산처럼 폭발한다. 그리고 ‘칼 빼어 물을 베어도 물은 다시 흐르고 잔 들어 삭여도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네’로 그의 슬픔

도 거침없이 토로된다. 이백 시는 종래로 속에서 끄끙 앓지 않고 시원하게 내뿜는 호방한 감을 준다.

왕벽등(王霹登)이 이백 시의 특징에 대해 ‘자유자재로 폼다잡었다하고 마치 어떤 사람이 열어주어 명월이 내리꽂지는 것같은데 그 경지를 추측할 수 없다[如羅帷舒卷 似有人開 明月直入 無心可猜]’라고 개괄한 것은 이것을 잘 말해준다. 이로부터 「비음기(碑陰記)」에서 ‘이백, 광객이다[李白, 狂士也]’라고 한 면모가 잘 드러난다.

한마디로 야랑 유배시는 ‘욕망을 많이 절제(歎欲欲絕)’한 것으로 두 보식의 사실주의 풍격을 많이 나타냈다면 그 이전의 시는 직설적이고 솔직한 이백 본연의 낭만주의 풍격을 많이 나타냈다.

이백은 그리 가정적이 아니다. 은거, 선유(仙遊), 술, 유배……. 가장으로서 문제가 많은 줄로 안다. 처자에 대한 애뜻한 정도 그리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신이 유배라는 어려운 삶의 역경 속에서 절로 생각나는 것은 집사람일 것이다. 이로부터 많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지어진다. 「남류야랑기내(南流夜郎寄內)」, 「대별정인(代別情人, 대신 정든 임과 이별하다)」, 「기원 기5(寄遠其五, 멀리 부치다 5)」, 「감흥 기3(感興其三)」, 「쌍연리(雙燕離)」 등은 그 보기가 되겠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남쪽 야랑 유배 시 아내에게 부치다」의 ‘야랑 땅에 멀리 떨어져 원망스러운데 밝은 달 비추는 누각에 그대 소식 거의 들을 수 없네. 봄 기러기가 북으로 돌아가 볼 수 없게 되었는데 남행길에서도 그대 예장의 편지 없네.[夜郎天外怨離居 明月樓中音信疏 北雁春歸看欲盡 南來不得豫章書]’에서는 유배지 야랑에서 오래 동안 집 소식이 없는 가운데 봄이 되어 북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고는 멀리 남창(南昌)에 있는 아내 예장종씨(豫章宗氏)를 그리며 수심에 잠겨

있는 시적 자아가 등장한다.

「대신 정든 임과 이별하다」에서는 ‘엷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흘러간 구름은 다시 찾을 수 없다[覆水不可收 行雲難重尋]’라며 있을 때 잘 해주지 못한 것에 후회도 하며 ‘애처로이 내내 우는 닭이여, 5경에 되어도 우네[哀哀長鳴鷄 夜夜達五曉]’, ‘상사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 돌아 가 촌심을 아는 사람에게 주다[起折相思樹 歸贈知寸心]’로 아내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멀리 부치다 5」의 ‘멀리 무산 남쪽을 그리나니 꽃은 명랑하고 푸르고 강은 따뜻하네. 주저하다가 가지 못하고 눈물은 남운에 가득 찼네. 봄바람은 무정하여 나의 꿈길을 끊네.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세월은 많이 흘렀는데 소식이 드무네[遠憶巫山陽 花明祿江暖 躊躇未得往 淚向南雲滿 春風復無情 吹我夢魂斷 不見眼中人 天長音信短]’에서는 「고당부(高唐賦)」의 ‘천첩은 무산의 남쪽에 있는데 높은 구릉에 막혔네[妾在巫山之陽 高丘之阻]’의 전고를 이용하여 한 부인이 멀리 떠나 있는 남자를 ‘취아몽혼단(吹我夢魂斷)’ 할 정도로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아내도 나를 생각하겠지 하는 식으로 실은 이백이 아내를 그리는 심사를 나타내고 있다.

「감흥 3」도 보면 ‘비단을 끊어 글을 적어 만 리 밖에 띄운다. 안타까이 먼데서 올 편지를 기다리는데 한 해가 다 가도록 누구 하나 오지 않네. 멀리 가는 기러기는 태양을 따르고 나한테 깃을 들지 않네. 광주리 깊이 둔 물고기는 썩어났네. 물 속에 놓아두려고 하니 다른 사람의 품에 들어갈 것 같네. 다른 사람의 품에 들어가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데 시비를 불러 일으킬까봐 저어되네[裂素持作書 將寄萬里懷 眷眷待遠信 竟歲無人來 征鴻遡鄕陽 又不爲我棲 委之在深篋 蠹魚壞其題 何如投水

中 流落他人開 不惜他人開 但恐生是非』로 아내한테 편지를 보내고 1년이 다 가도록 소식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쌍연리」도 보면 ‘제비 한 쌍, 또 한 쌍 짝이 되어 날으니 사람들을 부럽게 한다. 옥루 주각 화려한 곳에 혼자 살지 않고 금빛 창, 비단 문 짝에 서로 보고 살았다. 백량대가 불에 타 없어져 떠나버리고 오나라 궁궐에 잘못 들어왔었다. 오나라 궁궐이 불에 타버려 새끼들 모두 죽고, 둥지도 비었었다. 초라하게 한 몸뚱이만 남아 홀로 남은 암컷이 옛 낭군 생각한다. 짝이 되어 날기는 다시 어려우니 이내 속마음 아파하노라.[雙燕復雙燕 雙飛令人羨 玉樓珠閣不獨棲 金窗綉長常相見 柏梁失火去 因入吳王宮 吳宮又焚蕩 雛盡巢亦空 憔悴一身在 孀雌憶故雄 雙飛難再得 傷我寸心中]’로 짝이 되어 다시 날기 어려운 외로운 제비에 기탁하여 애수를 토로하고 있다.

이는 그가 영왕 이린의 막부로 들어가면서 지은 「별내부징삼수(別內赴徵三首, 아내와 이별하고 정벌에 나서다. 3수)」와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그는 ‘왕명에 따라 세 차례 정벌을 가서 돌아오지 않았네. 내일 아침에는 이별하고 오 땅 쪽으로 나가네.[王命三征去未還 明朝離別出吳關(其一)]’ 그 중 첫 번째 수로 결연히 떠날 갈 의지를 내비친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에서는 ‘문을 나서자니 마누라와 새끼들이 옷을 부여잡고 서쪽길로 떠나면 언제 올수 있는가를 묻더라. 돌아올 때 황금인을 차고 오려니 소진의 처를 배워 벼들에서 내려오지는 말게나.[出門妻子強牽衣 問我西行幾日歸 歸時倘佩黃金印 莫學蘇秦不下機]’로 붙잡는 아내에게 이제 금의환향하니 그때 소진(蘇秦)의 아내를 닮지 말고 열정적으로 맞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나는 짙은 애수고 하나는 호매로운 기개를 나타낸다.

자연은 시가창작의 영감적 원천의 하나. 이로부터 산수시 등 많은 자연시가 창작된다. 그런데 사실 이 자연시라는 것도 결국 따져보면 인간심리의 대상화로서 인간심리의 여하에 따라 그 시적 세계는 사뭇 달라진다. 이백도 여기서 예외가 아닌 줄로 안다. 그럼 이백이 야랑 유배 시기 지은 산수시와 그 이전에 지은 산수시를 잠깐 비교해 보는 것으로 이 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과동주향경구당협등무산최고봉만환제벽(自巴東舟行經瞿唐峽登巫山最高峰晚還題壁, 파동에서 배를 타고 구당협을 지나 무산의 가장 높은 봉에 오르고 저녁에 돌아와 벽에 쓰다)」을 보자. ‘강으로 몇 천리를 달리다. 바다의 15야 둥근 달. 처음 구당협을 지나 더디어 무산꼭대기에 올랐네. 무산의 높이는 끝이 없는데 파국의 풍상고초 다 겪어보았네. 해 가에서 드리워진 덩굴에 기어오르고 노을 밖에서 하늘석에 기대네. 나는 걸음으로 꼭대기를 넘고 아물아물 하늘가를 바라보네. 배 같은 깊은 골짜기를 굽어보고 푸른 하늘을 올려보네. 푸른 하늘을 만져볼 수 있을진대 은하수는 어디에 있는지. 구름을 보고 창오를 알겠고 물을 기록하여 영해를 변별해내겠네. 고광만을 두루 노닐고 두루 편람하니 그윽한 뜻이 많더라. 적설이 빈 골짜기를 비추고 슬픈 바람이 수림속을 울리네. 돌아오는 길이 아쉽고 그윽한 흥취는 끝이 없네. 강은 찬데 일찍 원숭이가 울고 소나무수림은 달을 내뱉네. 월색은 어찌 그렇게 유유한지! 맑은 원숭이 울음소리 짹짹 울리네. 산을 내려오면서 듣기 애처로워 말을 달려 외로운 배로 돌아오네. [江行几千里 海月十五圓 始經瞿唐峽 遂步巫山巔 巫山高不窮 巴國盡所歷 日邊攀垂蘿 霞外倚穹石 飛步凌絕頂 極目無纖煙 卻顧失舟壑 仰觀臨青天 青天若可捫 銀漢去安在 望云知蒼梧 記水辨瀛海 周游孤光晚 歷覽幽意多 積雪照空谷 悲風鳴森柯

歸途行欲曛 佳趣尙未歇 江寒早啼猿 松暝已吐月 月色何悠悠 清猿響啾啾 辭山不忍聽 揮策還孤舟』

그리고 「숙무산하(宿巫山下, 무산 아래에 머물며)」를 보자. ‘어제 저녁 무산 아래 만리 꿈속에 원숭이 울음소리 푸른 물에 복사꽃 날리면 삼월에 구당으로 내려간다. 빗 기운 바람에 불리어 가니 남행에 초왕을 스쳐 지나다. 고구산에 송옥이 생각나서 옛 자취 찾으니 눈물이 옷을 적신다. [昨夜巫山下 猿聲夢里長 桃花飛淥水 三月下瞿塘 雨色風吹去 南行拂楚王 高丘懷宋玉 訪古一沾裳]’

이 두 시는 이백이 야랑 유배길에 무산을 지날 때 지은 것이다. 이들 시에서 무산에 대해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상세하게 기술했다. 그리고 무고하게 죄를 지은 비분강개함이 시인의 가슴 속에 쌓여 자기와 마찬가지로 재간은 있으나 쓰이지 못한 송옥(宋玉)에 대해 일종 동병상련의 강렬한 공명을 느끼고 있다.

이 두 시는 봄날을 배경으로 하여 쓰여졌건만 봄의 기운이 아니라 가을의 소슬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골짜기의 소슬한 바람, 추운 강녘의 원숭이 울음소리, 소나무숲속에 자자드는 달빛…… 그래서 낭만적인 무산신녀(巫山神女)에 관한 이야기는 전 시기 시에서처럼 그런 농후한 흥취를 자아내지 못한다. 전반 시적 분위기도 전 시기 시와는 달리 상상이 나래치지 못하고 밝지가 못하다.

아래에 좀 더 구체적인 작품들을 비교하면서 이 점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이백은 야랑 유배시기에 「망목과산(望木瓜山, 목과산을 보며)」을 짓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보고 저녁에는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새들을 보네. 나그네 마음 본디 서글픈데 하물며 모과산을 바라볼 때에야. [早起見日出 暮見棲鳥還 客心自酸楚 況對木瓜山]’ 왕기

(王琦)가 집주(輯注)한 『대청일통지(大清一統志)』에 보면 불과산(不瓜山)은 상덕부(常德府) 성동쪽 7리. 함씨(咸氏) 『사전(辭典)』에 보면 목과산(木瓜山)은 호남 상덕현(湖南常德縣) 동쪽 15리 되는 곳에 있는데 이백이 야랑 유배시 이 산을 지나면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한다.

『강남통지(江南通志)』에 보면 목과산(木瓜山)은 지주부(池州府)의 청양 목과포(靑陽木瓜鋪)에 있는데, 두목(杜牧)이 비를 빌던 곳으로서 아직까지 절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태백이 자주 노닐던 곳이라고 했다. 시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새가 등지로 돌아오는 평화로운 정경이건만 정배 가는 나그네의 심사는 쓸쓸하기만 하다. 목과는 원래부터 신 것인데 그 이름을 띤 목과산을 대하니 더 신산해 난다’는 것이다.

이 시는 제목 「망목과산(望木瓜山)」만 보면 목과산을 읊은 자연시인 듯하다. 그러나 이 시는 자연시이기보다는 첫 두 구절을 비흥으로 끌어들이고 역접(逆接)의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시적 자아의 서글픈 심회를 토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전에 지은 「망려산폭포(望廬山瀑布)」를 보자. ‘향로봉에 해발드니 보라연기 이는 듯 앞 강물에 세웠느냐, 멀리 뵈는 폭포수야 삼천 척을 날아 흘러 떨어지는 너,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하수가 싶구나. [日照香爐生紫煙 遙看瀑布挂前川 飛流直下三千尺 凝是銀河落九天]’ 이백의 시에서 가장 생기가 넘치고 호쾌한 시다. 이 시는 이백이 ‘안사의 난’ 전에 여산에 은거하며 시세를 관망할 때 지은 것이다. 이때 이백은 여유롭고 자신만만할 때다.

그래서 「망려산폭포(望廬山瀑布)」는 시적 자아가 여산폭포를 바라보며 그것의 아름다움에 대해 낭만적인 상상을 가미하여 노래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상삼협(上三峽)」의 과 「독좌경정산(獨座敬亭山, 홀로 경정산에 앉아)」을 보도록 하자. 「상삼협(上三峽)」은 이백이 야랑으로 유배 갈 때 삼협을 지나면서 지은 시다. ‘무산은 푸른 하늘을 끼고 있는데 파수는 여기서부터 기원한다. 파수는 홀연 끝나는 듯한데 푸른 하늘은 끝날 때가 없네. 3조때 황우에 오르고 3모에는 너무 늦네. 3조에 3모를 더 하면 어느 듯 검은 머리 파뿌리 되네. [巫山夾青天 巴水流若茲 巴水忽可盡 青天無到時 三朝上黃牛 三暮行太遲 三朝又三暮 不覺鬢成絲]’ 삼협은 예로부터 무협(巫峽), 파수(巴水) 등으로 자연경관이 빼어나다. 그러나 이 시에서 보면 이런 자연경관이 시인의 눈에는 아름답게 안겨 오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삼조우삼모(三朝又三暮)’로 ‘불각빈성사(不覺鬢成絲)’ 할 뿐인 존재에 다름 아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지은 「독좌경정산(獨座敬亭山)」을 보도록 하자. ‘못새들은 모두 높이 날아가고 외로운 구름만 한가로이 가는데 서로 보고 싶어하지 않음은 경정산이 있기 때문이다. [衆鳥高飛盡 孤雲獨去閑 相看兩不厭 只有敬亭山]’ 이 시의 제목은 홀로 경정산에 앉아 있겠다. 첫 두 구절을 보면 못새들은 저 멀리 높이 날아 사라지고 외로운 구름은 저 홀로 한가하다. 새도 좋고 구름도 좋고 시적 자아와 관계 없다. 아니, 야속한 존재이다. 마지막 두 구절은 이에 반해 아무리 보아도 싫지 않은 것은 오로지 경정산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정산과 서로 교감하며 하나로 되는 느긋한 경지를 창출하고 있다.

이상 보다시피 「망목과산」과 「망려산폭포」도 「상삼협」과 「독좌경정산」도 좋고 시적 자아는 산을 기본 시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배 여부에 따라 그것의 시적 이미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4. 나가는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한 이백은 현실을 떠난 표일(飄逸, 표표연함)의 낭만주의 색채를 준다. 그러나 사실 그에게는 강한 입신양명의 현실 참여의식이 있다. 물론 그것은 ‘천생아재필유용(天生我材必有用, 하늘이 나의 재간을 냈으면 꼭 써먹을 때가 있다)의 느낌에 의한 것이지 속되게 벼슬살이에 연연한 것은 아니다.

그가 「증위비서자춘(贈韋秘書子春, 위비서 자춘에게 주다)의 ‘사직을 안정시킨 후 5호에 가리라[終與安社稷 功成去五湖]’, 「대수산담맹소부이문서(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 수산을 대신하여 맹소부 이문에게 답하여 적다)의 ‘임금을 모시는 도리를 다 하고 부모님을 빛내는 일을 다 한 다음에는 도주, 유후와 5호(즉 태호)에 배를 띄워 노닐고 창주에서 노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라.[事君之道成 榮親之義畢 然後與陶朱留侯 浮五湖(即太湖) 戏滄洲 不足爲難矣], 「류별왕사마고(留別王司馬篙, 왕사마호와 갈라지며)의 ‘노중련은 담소를 팔았는데 어찌 천금을 헤았으리오. 도주는 초월의 경지를 보였거늘 원래 5호의 마음이 있었음에라. 나 역시 남양자인데 그때 ‘양보음’을 했으라.……바라건대 현명한 임금을 보필하여 공업이 이루어지면 옛 수림둥지로 돌아가리라[魯連賣談笑 豈是顧千金 陶朱雖相越 本有五湖心 余亦南陽子 時爲 梁甫吟……愿一佐明主 功成還舊林]’ 등의 시에서 반복적으로 읊다시피 한 것은 ‘공성신퇴(功成身退, 공업을 이룬 다음 스스로 물러나다)한 후 ‘5호(五湖)’에서 노닐겠다는 것이다.

일종 ‘격류용퇴(激流勇退, 주동적으로 물러나다)의 경지를 말한다. 여하튼 당시 객관적 환경도 환경이겠지만 이백의 서툰 정계진출은 걸

과적으로 ‘사금방환’, ‘장류야랑’의 유배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인화 득복(因禍得福, 화 때문에 오히려 복이 되다)이라 할까? 그는 많은 유배시를 창작하기도 한다. 그의 이런 유배시는 그의 다른 시적 세계를 펼쳐 보여주고 있다. 이런 유배시를 통해 우리는 이백의 지극히 솔직한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특히 야랑 유배시와 그 이전의 시에 대한 비교문학적 고찰을 통해 우리는 희노애락의 정서적 기복이 대단히 큰 이백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스필도 낭만적인 이상에 대한 추구로부터 사실적인 현실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갔고 표표연한 표일(飄逸)로부터 코앞의 실제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일종 낭만주의로부터 사실주의로 나아갔다고 말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刘 昉, 旧唐书, 北京, 中华书局, 1975.
 欧阳修·宋祁, 新唐书, 北京, 中华书局, 1975.
 周春光, 李白流放夜郎考, 贵阳师院学报, 1981.2.
 邱耐久·朱孔扬, 李白确至夜郎考辨, 学术论坛, 1982.4.
 郁贤皓, 李白丛考, 西安, 陕西人民出版社, 1982.
 曾 巩, 曾巩集, 北京, 中华书局, 1984.
 詹 鍇, 李白诗文系年,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1984.
 毕熙燕, 读李白长流夜郎途中的诗篇, 运城师专学报, 1985.1.
 林东海, 巫山·巴东·夜郎—李白游踪考察记, 中日李白研究论文集, 中国展望出版社, 1986.10.
 王辉斌, 李白长流夜郎新考, 中国李白研究, 1991年集.
 张才良, 李白流夜郎的法律分析, 中国李白研究, 1992—1993年集.
 蒋 志, 李白与旅游, 许嘉甫·李白四渡峡江考辨, “李白与三峡”国际学术讨论会大会论文, 1997.10.
 许玮·许嘉甫, 李白谪居夜郎诗征, 绵阳师范高等专科学校学报, 1999.1.
 裴 斐, 李白的传奇与史实, 文学遗产, 1999.3.
 安 旗, 李白全集编年注释, 成都, 巴蜀书社, 2000.